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2014, 김진운 역)

프레임 ·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신약성경

존 프레임 『성경론』(김진운 역, P&R Korea·CLC 2014), 4부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제21장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신약성경', 약 223–228쪽

🧭 흐름 한눈에

프레임은 먼저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신약 전체를 한 권의 책으로 가리키며 “이것이 성경이다”라고 말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신약이 아직 쓰이는 중이었으니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길로 갑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실 때마다 그 내용을 글로 남기셨습니다. 가장 큰 언약인 새 언약만 기록이 없다면 이상한 일입니다. 또 기록이 없으면 예수님의 말씀은 한두 세대 뒤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들의 편지가 스스로 어떤 권위를 주장하는지 보여 줍니다. 편지는 예배 때 반드시 읽어야 했고,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의 징계를 받았으며, 은사 받은 사람의 권위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끝으로 신약이 쓰이던 때에 이미 신약의 일부가 '성경'이라고 불렸다는 증거를 들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기록 모두 하나님의 인격적인 말씀이라고 결론짓습니다.

📜 절별 정리

(원문에 소제목이 없어 논증 단락을 따라 일곱 절로 나눴습니다.)

📜 1. 신약 전체를 가리키는 구절은 왜 없는가

프레임은 정직한 인정에서 출발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과 베드로후서 1장은 구약을 하나의 완성된 문서로 보고 그 권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신약 전체를 그렇게 가리키는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프레임은 이것이 전혀 놀랄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신약 저자들이 글을 쓰던 때에는 신약이 아직 다 쓰이지 않았기

없습니다. 그렇다고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약을 기록된 인격적 말씀으로 쓰시려고 계획하셨다는 증거는 많다고 프레임은 말합니다. '인격적 말씀'은 프레임의 핵심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보 묶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권위 있게 말하고, 함께 계시며 소통하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1. 신약 전체를 지목하는 구절은 없다
2. 신약은 쓰이는 중이라 그럴 수 없었다
3. 그래도 다른 성경적 증거는 많다

> **디모데후서 3:15-17**
>
> 구약을 완성된 문서로 보고 권위를 말한 예. 신약에는 이런 구절이 없다는 비교 기준
>
> 15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 모든
>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 **베드로후서 1:19-21**
>
> 구약 예언의 신적 기원을 말한 예. 같은 비교 기준
>
> 19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 옳으니라 20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 21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 2. 새 언약도 말로 맺어진 언약이다

프레임은 신약을 구약과 떼어서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신약은 구약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어지고 있고 장차 완성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위대한 언약,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으신 새 언약에만 기록된 증거가 없을 수 있을까요? 프레임은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말이 덜 필요하다고 볼 이유가 전혀 없다고 답합니다. 언약은 본래 말로 이루어지는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밝히시고, 백성과 함께한 역사를 되짚으시고, 법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들었고, 자신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기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글로 남겼는가?

1. 신약은 구약의 구원 이야기의 연속이다
2. 모든 언약에는 하나님의 설명이 있었다
3. 새 언약만 기록이 없다면 이상하다
4. 언약은 본래 '말로' 맺는 관계다
5. 남은 질문: 사도들이 글로 남겼는가

> **(이 단락에는 직접 인용 구절이 없음)**
> 저자는 10장(언약은 언어적이다), 15장(예수님과 사도는 선지자), 19-20장(예수님과 사도들의 구약관)의 결론을 가져와 쓴다

📜 3. 언약은 기록으로 남는다

언약은 한 번 하고 끝나는 약속이 아니라 오래 이어지는 약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은 늘 문서로 남았다고 프레임은 말합니다. 모세 언약은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쓰셨고, 백성이 정기적으로 읽도록 성소에 보관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의 말씀도 뒷세대를 위해 보존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부에게서 성자로, 성자에게서 사도들로 넘겨진 '전통'입니다. 여기서 전통은 사람의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 주신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16장). 하나님의 분명한 마지막 계시가 기록되지 않았다면 계시의 역사는 매우 이상해졌을 것이라고 프레임은 말합니다. 바울도 자신과 사도들이 말로나 편지로 전한 전통을 굳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1. 언약은 오래 지속되는 약정이다

3. 모세 언약은 보관되어 낭독되었다
4. 마지막 계시가 기록이 없으면 이상하다
5. 사도의 전통은 말과 편지 둘 다로 왔다

> **히브리서 1:1-3**
> 하나님이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이 최종 계시가 기록되지 않았다면 이상하다는 논증의 바탕
>
> 1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 말씀하신 하나님이 2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 **데살로니가후서 2:15**
> 사도들이 '말로나 편지로' 전통을 전했다는 증거. 사도의 가르침이 글로도 왔다는 점
>
>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 지키라

📜 4. 기록이 없으면 예수님의 말씀도 없다

프레임은 독자에게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제안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며 가장 뛰어난 선지자의 말씀이기에 신자의 삶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을 세우셔서 새로운 계시를 받게 하시고, 자신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사도들은 그 기억을 입으로 가르쳐 한두 세대 정도는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의 세대가 예수님의 말씀에 닿을 길은 글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것을 직접 본 사도들의 기록이 없었다면 그 말씀은 영영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의 주님도, 구세주 예수님도 우리에게 없고, 기독교와 교회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은 오직 기록된 문서만이 하나님의 인격적 말씀을

1. 예수님의 말씀은 신자에게 생명줄이다
2. 성령께서 사도들이 기억하게 하셨다
3. 입으로는 한두 세대만 전할 수 있다
4. 기록이 없으면 교회도 없었을 것이다

> **요한복음 6:68**
>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예수님의 말씀이 신자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근거
>
>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 **요한복음 14:26**
>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사도들이 말씀을 보존하도록 세워졌다는 근거
>
>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단지 기록된 문서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말씀을 보존할 수 있다.”

📜 5. 사도의 편지는 사도의 말만큼 권위 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 사도들은 자신의 설교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15장). 그리고 적어도 여러 사도가 그 가르침을 글로 남겼습니다. 프레임은 묻습니다. 그 글이 입으로 한 증언보다 권위가 덜할 수 있을까요? 그의 답은 '아니다'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의 글도 그들의 말만큼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17장). 게다가 사도들의 편지는 스스로 완전한 권위를 주장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읽고 라오디게아 교회와

주님 앞에서 치르는 엄숙한 순서였습니다. 바울은 “주를 힘입어” 모든 형제에게 편지를 읽어 주라고 명합니다. 프레임은 여기서 구약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지도자들이 율법을 백성 앞에서 공개적으로 읽었고, 그 율법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각주: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는 잃어버린 바울 편지일 수도 있고, 여러 교회가 돌려 읽은 에베소서일 수도 있다고 프레임은 추측합니다. 다만 그는 이것이 하나의 제안일 뿐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1. 선지자의 글은 말만큼 권위 있었다
2. 사도의 글도 마찬가지다
3. 편지 읽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였다
4. 예배 중 엄숙하게 낭독되었다
5. 구약의 율법 낭독과 같은 패턴이다

> **골로새서 4:16**
> 편지를 읽고 다른 교회와 돌려 읽으라는 명령. 사도 서신 읽기가 의무였고 예배 때 낭독되었다는 근거
>
>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 **데살로니가전서 5:27**
> “주를 힘입어” 모든 형제에게 읽어 주라는 엄숙한 명령. 편지 낭독이 무거운 책임이었다는 근거
>
>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주라

> **신명기 31:19-22**
> 노래와 율법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증거가 된다. 구약의 패턴
>
> 19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20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22 그러므로 모세가 그 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신명기 31:26

율법책을 언약궤 곁에 두어 증거로 삼으라. 언약 문서를 보관하는 패턴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열왕기하 23:2

요시야가 언약책을 백성 앞에서 낭독. 공개 낭독의 구약 예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느헤미야 8:1-8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고 뜻을 풀어 줌. 공개 낭독의 구약 예

1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2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3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매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4 그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맛디댜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밧다나와 스가랴와 므술람이라 5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6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

📜 6. 순종은 선택이 아니다: 권징과 은사보다 위에 있는 편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씁니다. 이 편지에 쓴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지목해서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라. 다만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형제처럼 권하라. 곧 바울 편지에 순종하느냐가 교회 징계(권징)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상황이 더 분명합니다. 그 교회에는 선지자와 영적 은사를 받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은사'를 가졌다는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했습니다(고린도전서 12-13장). 바울은 자기가 쓴 이 글이 “주의 명령”임을 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선지자나 신령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프레임은 여기서 바울이 기록된 편지를 교회 안 누구의 권위보다 위에 두며, 자기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한다고 읽습니다.

1. 편지에 대한 순종이 권징의 기준이다
2. 고린도엔 은사자가 많아 교만했다
3. 바울: 내 글이 주의 명령이다
4. 기록된 말씀이 은사자의 권위보다 위
5. 그것을 인정해야 진짜 신령한 사람이다

> **데살로니가후서 3:14-15**
> 편지에 불순종하면 교회가 징계한다. 사도 서신이 구속력 있는 권위라는 근거
>
> 14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15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 같이 권면하라

> **고린도전서 14:37-38**

> [37]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38]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고린도전서 12-13장

은사 때문에 생긴 교만과 분열이라는 배경. 바울의 주장이 나온 상황

📜 7. 기록되던 때에 이미 '성경'으로 불렸다 (결론 포함)

프레임은 신약이 쓰이는 동안에도 신약의 일부가 이미 '성경'으로 여겨졌다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서 바울은 잘 다스리는 장로를 존경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존경'은 오늘날 사례비 같은, 섬김에 대한 보답입니다. 바울은 그 근거로 “성경에 일렀으되”라며 두 문장을 듭니다. 하나는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신명기 25:4입니다. 다른 하나인 “일꾼이 그 삯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는 구약에 없는 말입니다. 프레임은 그 출처가 '아마도' 누가복음 10:7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누가복음을 구약과 나란히 같은 권위로 인용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바울 편지에 대해 같은 말을 합니다. 바울 편지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사람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다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으로 베드로는 바울 편지를 '성경'이라는 범주에 넣습니다. 프레임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사도들은 말로 가르칠 때뿐 아니라 글을 쓸 때에도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옛 언약에 권위 있는 기록이 있듯이 새 언약에도 권위 있는 기록이 있으며, 둘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격적 말씀입니다.

1. 바울이 누가복음을 '성경'으로 인용
2. 신명기와 같은 권위로 나란히 놓음
3. 베드로가 바울 편지를 '성경'에 넣음
4. 사도는 글을 쓸 때도 선지자였다
5. 옛 언약·새 언약 모두 기록이 있다

> **디모데전서 5:17-18**

17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18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삯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신명기 25:4

첫 번째 인용(일하는 소). 바울이 '성경'이라 부른 구약 본문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누가복음 10:7

두 번째 인용의 유력한 출처. 복음서가 구약과 같은 권위로 인용되었다는 점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베드로후서 3:15-16

“다른 성경과 같이”. 베드로가 바울 편지를 성경 범주에 넣는다는 근거

15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16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 둘 모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말씀이다.”

⚖️ 오해와 반론

언약

하나님이 백성과 맺으시는 관계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기를 밝히고 약속과 법을 주시는 오래 지속되는 약정입니다.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백성과 맺으신 언약으로, 구약의 모든 언약이 가리키던 가장 큰 언약입니다.

인격적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권위 있게 말하고, 함께 계시며 우리와 소통하시는 것이라는 프레임의 설명입니다.

구속사

창조에서 그리스도를 거쳐 마지막 완성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하시는 역사의 흐름입니다.

사도

예수님이 직접 세우셔서 자신의 말을 대신 전하게 하신 대변인입니다.

선지자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프레임은 사도도 이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전통

여기서는 사람의 관습이 아니라, 성부가 성자께, 성자가 사도들에게 넘겨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을 뜻합니다.

권징

죄를 고치고 교회를 지키려고 교회가 하는 징계입니다.

회람용 편지

한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 교회가 돌려 읽도록 쓴 편지입니다.

정경(원문 각주의 '정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어 성경에 들어간 책들의 목록입니다.

🔗 다른 책과 닿는 곳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신약 전체를 지목하는 구절이 없는 것은 신약이 쓰이는 중이었기 때문이며, 신약의 권위가 약하다는 뜻이 아니다.
- 하나님은 언약마다 기록을 남기셨으니, 가장 큰 새 언약에도 기록이 있어야 한다. 기록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존한다.
- 사도들의 편지는 스스로 권위를 주장한다. 예배 중 낭독은 의무였고, 불순종은 권징의 대상이었으며, 편지는 은사자의 권위보다 위에 있었다.
- 신약이 쓰이던 때에 이미 그 일부가 '성경'으로 불렸다.
- 옛 언약의 기록과 새 언약의 기록은 모두 하나님의 인격적인 말씀이다.

🎬 이 장을 쓰는 편

- 성경론 8편 · 예수님은 성경을 어떻게 보셨나 · '성경이 이르시되'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